

## A Study on the Virtues of Non-Cruelty and Pity in the Parrot Episode of *Mahabharata*

Chinyoung Kim\*

Sogang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virtues of Non-cruelty and Pity in the Parrot Episode of Mahabharata and interprets whether a short animal fable is extended to the worldview of Yudhisthira. In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fact that the virtue of Non-cruelty reduces social cruelty, and Pity suggests solidarity with social empathy.

**CONTENTS** In the parrot episode dealt with in this study, those with Non-cruelty and the bhakti of devotion as a virtuous person, and their outstand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re defined as 'Pity'. The reason Bhishma taught the parrot episode to Yudhisthira was that he wa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rot and the tree to be extended and applied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people. This aids Yudhisthira in establishing the standard for social dharma as a king through the parrot's exemplary case.

**RESULTS** The parrot episode shows the wisdom of peace and happiness, living with Pity in the bond and relationship while taking the moral of Non-cruelty. This narrative examines that Mahabharata pursues a philosophy of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weak and an emotional ethics through two virtues.

**KEY WORDS** Mahabharata, Non-cruelty, Cruelty, Compassion, Pity, Indian Ethics

\* **Corresponding to** Chinyoung Kim (Professor, Richard Schaeffler Institute, Sogang University)  
E-mail : purohita@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 마하바라타 ‘앵무새 에피소드’의 잔인하지 않음과 연민의 덕목 연구

김진영

서강대학교 리하르트세플러연구소 교수

###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마하바라타』의 ‘앵무새 에피소드’의 ‘잔인하지 않음’과 ‘연민’의 덕목을 분석하여 짧은 동물우화가 주인공 유디슈티라의 세계관에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두 가지 미덕이 사회적 ‘잔인성’을 줄이고 공감의 연대를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앵무새 에피소드는 ‘잔인하지 않음’과 ‘신애의 박티’를 구비한 자를 ‘덕 있는 자’로 부르고, 그 탁월한 인격의 특징을 ‘연민’으로 규정한다. 비슈마가 앵무새 에피소드를 유디슈티라에게 교설한 이유는 앵무새와 나무의 관계가 유디슈티라가 왕이 되었을 때 왕과 국민의 관계 내에서 확장되어 적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앵무새 에피소드의 ‘잔인하지 않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잔인성’을 줄이고, ‘연민’은 공감과 유대를 제시하는 마하바라타의 정치적 기획의 덕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 앵무새 에피소드는 ‘잔인하지 않음’의 윤리적 가치와 ‘박티’라는 신성한 친밀감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유대와 관계성에서 ‘연민’을 느끼며 사는 고락평정의 지혜를 교설로서 보여준다. 이 서사구조는 마하바라타가 두 덕목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철학과 감성적 윤리학을 지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마하바라타, 잔인하지 않음, 잔인함, 자비, 연민, 인도윤리학

## I. 서 론

『마하바라타(Mbh)』는 인도의 건국 서사시로 주인공 유디슈티라(Yudhiṣṭhira)가 진정한 다르마(dharma)의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제 13장에서 크리슈나(Kṛṣṇa)신은 유디슈티라에게 교설을 전수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천계에서 비슈마(Bhīṣma)를 불러와 왕이 가져야 할 현실적인 이념과 도덕적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크리슈나는 유디슈티라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비슈마와 유디슈티라를 만나게 한다. 장차 왕위를 이을 주인공과 사자(死者)의 만남은 기적을 넘어 마하바라타 전체에서 유디슈티라가 추구하는 다르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치 역할을 한다. 마하바라타에서 신이 아닌 이상적인 인간 비슈마가 왕의 다르마를 교설하도록 서사의 문맥을 설정한 이유는 유디슈티라가 던진 질문에 담겨있다. 유디슈티라는 비슈마에게 ‘잔인하지 않음(ānṛśamsya)’의 속성(guṇa)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비슈마가 준비한 것이 바로 Mbh(13.5)의 앵무새 에피소드이다. 일명 ‘앵무와 인드라의 대화(śuka-vāsava-saṃvāda)’로 불리는 이 에피소드는 앵무(śuka)와 신들의 왕인 인드라(Indra)의 대화를 통해 ‘잔인하지 않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상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향후 유디슈티라의 가치론적 판단을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하게 된다.

마하바라타는 판다바의 장남 유디슈티라가 국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주요 논제로 삼는다.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의 경우 앵무새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마하바라타의 제 13장 이전에 이 덕목의 정의와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끝낸 상황에서 비슈마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즉, 앵무새 에피소드에서 비슈마와 유디슈티라가 논의하는 문제는 잔인하지 않음 자체가 아니라 이 덕목의 부수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 앵무새 에피소드는 잔인하지 않음의 속성에 관한 논의를 위해 동원된 우화로서, 잔인하지 않음을 갖춘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통해 완성되는지를 묻는 유디슈티라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오, 다르마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시여, 저는 잔인하지 않음(ānṛśamsasya)과 다르마(dharmasya)와 신애를 갖춘 이들(bhaktajanasya)의 속성(guṇa)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설명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Mbh, 13.5.1).

이 질문에 대해 비슈마는 고대 전설인 앵무새 에피소드를 교설하면서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과 ‘연민(anukrośa)’이라는 도덕적 감수성이 통합되는 과정을 알려준다. 비슈마는 유디슈티라가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잔인하지 않음과 연계되는 연민의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는 잔인하지 않음의 미덕을 갖춘 유디슈티라에게 왕이 된 후에 연민이라는 부수적 덕목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비슈마교설의 거시적 목적을 담고 있다.

앵무새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카쉬(kāśī)왕이 통치하던 나라의 커다란 숲에 있던 나무(vṛkṣa)에 등지를 틀고 살던 행복한 앵무새이다. 사슴(mṛga) 사냥에 나선 사냥꾼(lubdhaka)의 독화살이 빗나가 나무에 꽂힌 후 나무가 시들어가자 다른 새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다른 나무로 옮겨간다. 하지만 주인공 앵무새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려가면서도 나무를 떠나지 않는다. 이를 관찰하던 인드라는 브라만으로 변신하여 앵무새의 진심을 알아보고자 한다. 앵무와 대화를 나눈 인드라는 이 새가 인간보다 진화된 감정과 성품을 지녔으며 그 행위가 ‘잔인하지 않음’과 ‘연민’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인드라는 Mbh(3.5.9)에서 앵무새의 고귀한 성품에 감탄하면서 축생(畜生, tiryagyoni)인 동물이 가장 고귀한 위계의 인간, 그것도 재생족(再生族, dvija)만이 갖는 특징을 갖고 있음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잔인하지 않음’은 마하바라타의 후반부에서 유디슈티라가 천계에 이르는 길을 함께 한 개에게 보여준 윤리적 덕목이다(Kim, 2021: 646). 유디슈티라와 개의 에피소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잔인하지 않음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앵무새 에피소드는 앵무새라는 동물과 나무라는 식물의 관계에서 이 덕목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려준다. 두 에피소드 모두 종(種)이 다른 두 존재가 만나고,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가 잔인한 상황에 노출되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속한 존재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앵무새 에피소드에서 나무에 가해진 우연한 폭력으로 자신과 오랜 관계를 맺은 나무가 잔인한 상황에 처하자 앵무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하지 않음’의 주체적 태도와 ‘연민’이라는 도덕적 감수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하바라타에 나타난 앵무새 에피소드의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과 부가적 속성인 ‘연민’의 덕목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마하바라타에서 현자 비슈마가 유디슈티라에게 앵무새의 전설을 교설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앵무새 에피소드에서의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의 가치와 이론적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마하바라타에 삽입된 동물우화가 인간을 위한 교설로 기능할 수 있는 윤리적 이론체계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잔인하지 않음의 대표적 우화로서의 앵무새 에피소드의 가치론적 입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마하바라타에서 나타나는 잔인하지 않음의 도덕적 가치와 부가적 속성인 ‘연민’의 관계를 도덕적 가치와 감수성의 상관이론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잔인하지 않음을 자비나 연민으로 혼용하거나 포괄적 맥락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비, 연민, 동정, 공감 등의 주요한 덕목을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윤리학적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립해보고자 한다. 자비(慈悲)는 자애(慈愛, maitrī)와 비애(悲哀, karuṇā)의 복합어의 줄임말로 그 안에 연민, 동정, 공감 등의 혼재된 도덕적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어 왔다. 특히, 마하바라타는 유디슈티라의 주요한 덕목으로 자애와 비애가 아닌 ‘잔인하지 않음’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원전의 본의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덕목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여 재맥락화하고자 한다. 셋째, 앵무새 에피소드에서 사용된 ‘잔인하지 않음’이라는 주요 덕목과 ‘연민’이라는 부가적 덕목의 관계와 그 특징을 분석하여, 에피소드의 교

훈이 국왕의 덕목체계로 확장해석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잔인하지 않음과 연민의 덕목의 인식론적 체계와 연관된 고락평등의 지혜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앵무새와 유디슈티라의 다르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 II. 앵무새와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

앵무새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앵무새와 나무이다. 생명계 하단에 위치한 동물과 식물이라는 개체는 잔인하지 않음의 도덕적 원칙과 연민의 도덕적 감수성의 유용성을 파악하는 존재론적 배경이 된다. 다스는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앵무새로 설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보기에 이 텍스트는 다르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즉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더 낮은 존재의 동물을 주체로 삼아 이야기를 펼친다. 다른 이야기에서 신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보다 낮은 존재의 인간을 통해 ‘잔인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하급의 존재로 설명해야만 했을 것이다.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종을 초월한 ‘잔인하지 않음’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의무나 규율이 아닌 우연성에 기인한 동료애의 감각, 즉 운명지어진 환경에 의한 동료애를 포함한 ‘잔인하지 않음’의 감정적 전개를 유추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Das, 2013: 26).

주인공 앵무는 인도 앵무새로서 목도리 앵무로 불리는 초식동물이다. 다른 생명을 상해한 경험 없는 이 앵무새는 자신에게 거주공간과 먹이를 제공해주는 나무와 절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독화살이라는 외적이고 우연한 변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나무는 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숲의 신이었다. 하지만 독화살에 맞아 시들면서 나무는 새에게 아무 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존재로 추락한다. 나무의 뒤바뀐 처지에 다른 새들은 나무를 떠나지만 앵무는 이 자연스러운 이주를 거부하고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절제하는 삶을 선택한다. 사냥이라는 공인된 폭력에 의해 발생한 ‘잔인함’은 나무 뿐 아니라 앵무새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앵무새는 ‘잔인하지 않음’에 의거해 나무를 떠나지 않는 행위를 한다(Lath, 2009: 116). 인드라는 Mbh(3.5.26)에서 “나는 당신이 ‘잔인하지 않음’에 의해서 다르마를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dharmajñam ānṛśamsyena toṣitah).”라고 찬미한다.

나무는 메말라가서(śuṣkam) 잎이 없고(niṣpatra) 열매를 맺지 못하는(aphalam) 상태로 묘사되는데, 이 상태는 천적에게 노출되게 만들고 비바람을 피할 수 없기에 새의 안식처(aśaranya)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죽어가며(gatāyus), 약하고(asāmarthya), 시들어버

린(kṣīṇasāra) 등으로 형용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앵무새가 나무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행위가 평범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드라는 나무를 떠나지 않는 앵무새에게 Mbh(13.5.8)에서 그 행위를 ‘신성한 행위(atimānuṣaṣṭita)’라고 하고, Mbh(13.5.16-17)에서는 의존할 수 없는 나무에 대한 냉혹하고 신랄한 말을 늘어놓으며 다른 나무를 선택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한다.

메마른 나무구멍(koṭara)에 남아 있는 앵무새에게 인드라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앵무새는 나무는 숲의 주재신(vanaspati)이며 자신은 나무에 대한 신애(信愛, bhakti)를 갖고 있기에 떠나지 않는다고 답한다. 앵무새는 자신이 태어난 나무에서 정체성을 이루며 성장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숲의 신과 신애자의 신성한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설명한다. 인드라가 나무에 대한 힐난의 말을 퍼부을 때 앵무새는 그런 잔인한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앵무새의 이러한 태도는 나무가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도 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관계성을 깨는 것이 ‘잔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앵무새의 잔인하지 않음의 행위는 상호간의 이익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하려는 결단에서 비롯된다.

이에 앵무새는 “이 나무가 살게 해 달라”고 말하며, 잔인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영원히 이 나무와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Mbh, 13.5.27).

두 개체 사이의 신뢰는 동물과 식물이라는 종을 초월한 동료애에 근거하며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에 의한 것이다. 앵무새는 자신의 삶의 근간이 되는 ‘나무’가 경험하는 고통을 공감하며, 더 나아가 이 모든 현실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섭취와 같은 절제의 방식을 택하여 함께 한다. 앵무새의 내면적 태도 역시 나무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연민은 주체가 타자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의무가 아니라, 나누는 자의 신애와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에 근거한다. 기꺼이 나무의 고통을 나누는 연민에 의해 앵무새의 기쁨(prīti)이 증가하는 것이다(Heim, 2022: 55). 이처럼 연민은 잔인하지 않음을 갖춘 유디슈티라에게 타자 혹은 사회와 연대하고 공존하려는 도덕적 감수성으로서 교훈적 의미를 갖는다. 앵무새 에피소드에서는 이를 ‘덕을 갖춘 자’의 ‘연민’으로 설명한다.

### III. 덕을 갖춘 자의 연민

Mbh(13.5.19)에서 앵무새는 ‘덕 있는 앵무(dharmātmā śuka)’로 불린다. 그리고 Mbh(13.5.21)에서 앵무새는 자신이 덕 있는 자(sādhubhīṣ)의 성품(guṇa)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무 덕분이라고 말한다. BG(4.8)에서 덕 있는 자(sādhūnā)는 ‘악한 자’에 상대되는 ‘선한 자’를 말하는 것

이지만 앵무새 에피소드에서 덕있는 자는 ‘잔인하지 않음’과 ‘신애가 독실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자이며,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연민’이다.

잔인하지 않음(*ānṛśamsya*)을 갖춘 이와 신애적인(*bhaktasya*) 이에게는 연민(*anukrośa*)이 동반되어야 한다. 덕 있는 자들(*sādhūnā*)의 위대한 다르마(*dharma*)의 특징(*lakṣaṇa*)이 연민이고, 그리고 연민은 언제나 덕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다(*sadā prītim prayacchati*)(*Mbh*, 13.5.22-23).

라스(Lath, 2009)의 ‘잔인하지 않음(*ānṛśamsya*)’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다수 학자들은 이 용어를 자비나 연민으로 번역하면서 이를 동정, 공감, 동감 등과 혼용하고 동의어처럼 해석해 왔다. 하지만 위 인용문의 경우 ‘잔인하지 않음’을 자비나 연민으로 해석하면 ‘자비를 갖춘 자에게 자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동어반복이 된다. 라스가 *ānṛśamsya*를 선의지, 호의, 동료애, 타자에 대한 깊은 감각 등을 포괄한 ‘잔인하지 않음’으로 정의하면서, 공동체적 연대를 지향하는 이 미덕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와 후속연구가 촉발되었다. 힐테바이텔은 ‘잔인하지 않음’을 이상적 규범윤리인 비폭력과 다른 방식으로 폭력에 저항하는 개념이며, 이 덕목에 의해 파생되는 ‘연민’은 “위대한 나눔을 넘어서서 창조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부드러움”(Hiltebeitel, 2001: 213)으로 규정한다. 두 경우 모두 ‘잔인하지 않음’이라는 주덕목과 ‘연민’이라는 보조적 덕목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면서 도덕적 윤리체계와 감수성이 구비된 사회적 연대를 지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더 나아가 달미야는 연민이 감정적이고 도덕적 유대에서 발생하며 이 유대감은 주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가 이성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연민은 ‘잔인하지 않음’과 이성적으로 연결되면서 타자와 공동체에게 배려와 친절의 행위로 표출되기 때문에,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사회적 유대에 대해 반성적 탐구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앵무새가 나무에게 보이는 도덕적 ‘유대(紐帶, bond)’로서의 연민을 달미야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Dalmyia, 2015: 118).

나는 이 나무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나무는 사냥꾼에게서 나를 가려주고 자신의 열매로 나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떠날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것은 잔인합니다. 왜 당신은 나와 공감하여 나무와의 유대인 연민(*anukrośa*)을 약화시키려고 하십니까?(*Mbh*, 13, 5.22-24).

달미야는 앵무새가 나무를 떠나지 않는 결정에 ‘감정적 유대(emotive ties)의 체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Dalmyia, 2017: 149), 잔인하지 않음과 연민을 타자와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배려와 돌봄의 윤리로 해석한다(Dalmyia, 2016: 225). 여기

서 주의할 점은 잔인하지 않음이 오직 덕 있는 자들의 다르마이며, 연민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다르마가 아니라 오직 덕 있는 탁월한 자들의 다르마를 완성시키는 부차적 다르마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유디슈티라가 비슈마를 만나 ‘덕을 갖춘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앵무새가 나무를 떠나지 않은 것은 앵무새가 ‘덕 있는 앵무’였기 때문이고, 잔인하지 않음과 신애를 갖춘 ‘덕 있는 앵무’이기에 ‘연민’이라는 진화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인드라는 앵무새가 ‘잔인하지 않음’이라는 도덕적 기준과 나무에 대한 ‘신애’의 관계를 인식하는 덕 있는 앵무이며 그 앵무가 ‘연민’이라는 윤리적 감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야 나무를 되살리는 은혜를 베푼다(Rai, 2016: 216). 그 과정에는 덕 있는 자의 연민이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선이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는 ‘실제적 숙고(practical deliberation)’가 포함되어 있고, 타자에 대한 돌봄(care)이나 배려를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가치판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Das, 2019: 872).

그러나 나무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앵무새의 배려는 대화와 소통이 없는 배려이다(Dalmiya, 2015: 125). 고통받는 대상을 기준으로 연민에 의해 마음을 움직이고, 주체가 잔인한 행동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워서, 잔인하지 않음에 맞게 행위하는 구조로 작동된다(Raveh, 2016: 43). 즉, 앵무새는 나무에 대한 연민에 의해 마음을 움직이고 나무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잔인한지를 판단하여 ‘잔인하지 않음’에 맞게 행위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앵무새는 인드라의 권유에 힘들어하면서도 저항하며 신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런 의미에서 연민은 관계성 내에서의 배려로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적 존재의 울부짖음을 단순히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잔인해지지 않겠다는 주체적 의지와 윤리적 보살핌의 목소리를 갖고 이성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덕 있는 앵무새가 구비한 ‘잔인하지 않음’의 도덕적 가치와 ‘연민’의 윤리적 감수성은 주인공 유디슈티라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덕있는 유디슈티라가 연민을 갖추게 되면 도덕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게 된다. 이는 이상적인 왕의 윤리적 프레임에 ‘잔인하지 않음’과 통합되어야 할 보조적 덕목이 바로 연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마하바라타에서 ‘잔인하지 않음’과 통합되는 ‘연민’의 진위는 판다바형제의 어머니 쿤티(Kuntī)와 그녀의 숨겨진 아들인 카르나(Karna)와의 대화(Mbh 5.144.4-8)에서도 나타난다. 쿤티는 자신이 버린 자식인 카르나를 만나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 눈물을 본 카르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이 아닌 본인에 대한 연민이기에 그 행위가 미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카르나는 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카르나의 고통에 공감한 도덕적 연민이 아니라 자기 분위적 슬픔을 위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잔인함’이라고 분별한다(Bryant, 2007: 32-33). 쿤티가 보여준 잔인함과 연민은 병든 나무의 고통에 대해 ‘잔인하지 않음’의 가치판단과 ‘연민’의 감수성을 보인 앵무새의 상황과 상반되며, 앵무새가 사익(私益)을 넘어서는 동료애를 보였다는 점과 명확히 대조된다. 인드라는 덕 있는 앵무새에 감동받아 새의 소원(vara)을 들어주는 인도신화의 특

정적 클리셰(cliché)를 재현하는데, 그가 앵무새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는 앵무새가 나무에 대해 ‘잔인하지 않음’이라는 태도와 신애적 관계의 확고함을 바탕으로 배려윤리(Caring Ethics)적 ‘연민’의 감수성을 복합적 구조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앵무새의 굳건함을 알아챈 인드라는 앵무새가 구축한 계(śīlasāmpada)에 기뻐하며(pṛīta), 즉각 불멸주로서 나무를 관정한다(vṛkṣam amṛtenāvasiktavān). ... 결국 앵무새의 확고한 신애에 의해 나무는 소생하게 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앵무새와 나무는 상호간의 안식처에서 안주(安住)하며 함께 하는 교제(samāśrita) 안에서 최고의 결말을 맞이한다(Mbh, 13.5. 28, 31).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이 연민이라는 부차적 덕목과 만나 완성되는 앵무새의 교훈은 전쟁 이후의 인간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덕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왕은 연민을 갖추어야만 하는 필연적 상황, 주인공 유디슈티라가 국왕이 되어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상 이후 비탄에 빠진 백성에 대해 연민이라는 감정적 배려로 대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함축한다(Minnema, 2013: 199). 이는 덕 있는 왕이 ‘잔인하지 않음’을 지고의 다르마로 삼고,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미망인들과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장님과 같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연민’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 IV. 덕의 인식과 고락평등지

앵무새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앵무새에게 나무는 평생 기쁨[樂]을 준 대상이었다가 독화살이라는 외부적 폭력에 의해 고통[苦]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앵무새는 이를 고통으로 인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무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고락평등(苦樂平等, samaduḥkhasukha)의 지혜’를 보여준다. 이 지혜는 고통과 기쁨을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고락평등지(苦樂平等智, duḥkhasukhamjñātvā)’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나 타인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타주의와는 전혀 다른 타자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인식론적 지혜이다. 앵무새는 나무가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나무에 머문 것이 아니다. 나무와 불가분의 관계나 계약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며, 앵무가 나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누구도 이 상황을 배신이라고 하지 못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앵무새 에피소드는 두 개체의 ‘관계성의 우화’로 불린다(Dalmiya, 2001: 297). 인드라가 앵무새에게 가장 크게 놀라는 점 또한 종이 다른 개체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앵무새가 고락평등지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파카(Paka)의 정복자[인 인드라]는 고귀하고 위대한 영혼인 마하살(摩訶薩, mahāsattva)이며 신

성한 행위(atimānuṣaṣeṣṭita)를 한 (새가) 고락평등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Mbh, 13.5.8).

인드라가 미물인 앵무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홀로 나무를 떠나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지만 대화를 통해 앵무새가 ‘잔인하지 않음’이라는 덕목을 알고 실천하면서 고통과 행복이 동일한 것임을 파악하는 평등성(samatva, samata)을 갖고 있음에 경외감을 표한다.<sup>1)</sup> 앵무새와 나무의 관계는 신자와 신의 관계로 설명되기에 주종적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관계는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상호돌봄의 관계이다. 서로를 편애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감정과 인식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만유가 동등하게 보이며 모든 생명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평등성의 관계이다. 이 평등한 관계는 Mbh(13.5.10)에서 “모든 살아있는 유정들(prāṇin)이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감정을 보이기 때문(sarveṣāṃ sarvaṃ sarvatra dṛśyate)”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앵무새가 이러한 평등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브라만으로 변장한 인드라를 보자마자 알아차리는 부분에서 부터 암시된다. 이는 Mbh(13, 5.13)에서 ‘고행에 의한 인식력(vijñātas tapasā)’으로 설명되는데, 고행은 탁월한 능력이지만 선악을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bh(13.5.15)에서 선한 행위(śubhakarman)에 근거한 ‘지고의 정의로운 지식(paramadhārmika-vijñānan)’이라는 측면이 보강되어 설명된다. 비슈마는 Mbh(12.76.18)에서 “당신의 지성(buddhi)으로 ‘잔인하지 않음’을 수행해 위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잔인하지 않음’이 지성적 이해로서 얻어진다고 보았으며, 유디슈티라도 Mbh(12.158.1)에서 ‘잔인하지 않음’이 철학의 대상이고 지식의 문제임을 명확히 언급한다.

유디슈티라가 말하길, “나는 신애자들 사이에서 잔인하지 않음(ānṛśamsya)을 철학(darśana, 觀)하고 인식하며(vijānāmi), 나는 잔인(nṛśamsa)한 이들과 그 행위(karma)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처럼 ‘잔인하지 않음’은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인 철학의 대상이자 지성적 행위이며, 고정화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없다. 비슈마가 앵무새 우화를 주요한 교설로 선택한 것은 앵무새의 지혜가 유디슈티라 왕의 지혜로 적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마하바라타는 왕이 갖추어야 할 지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하여 주체적인 결정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왕은 독단이 아니라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지식과 이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왕은 정형화된 틀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고정화된

1) 평등성은 BG(2.48)에서 요가(yoga)와 동일한 것으로 언급되며, BG(9.29)에서 크리슈나가 보여주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관점, 동일한 마음가짐(sama-buddha)과 같다. 모든 것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내적 초연함은 공공의 안녕(sarva-bhūta-hita)의 근거가 되는 평등심(sama-cittatva)이다. BG(13.8-9)에서 평등한 통찰력(sama-darśana)과 같은 말이다.

지식을 추종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지혜로 백성을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왕의 지혜는 여러 사람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축적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마치 벌이 여기저기에서 꿀을 모으듯이 지혜를 모아 놓는 ‘꿀(madhu)의 지혜’라 불린다. 꿀의 지혜는 Mbh(12.140.4-6)에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지성(pratividhātavyo buddhyā)’이 아니라 ‘여러 사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지혜(pratividhātavyāḥ prajñā)’로 표현된다.

국왕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사건과 용례에 맞는 유연한 지혜를 가져야 하며, 이는 국민의 정서에 공감하는 감정적 통찰이 더해지는 이중적(dvaidha)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국왕의 지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건이 아닌 인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사건의 맥락을 포용해야 하는 복잡한 지혜이기에 ‘우월한 지성(buddhisamjanana)’이라 칭하며 Mbh(12.140.5-6)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월한 지성’을 소유한 왕만이 승리를 기대하고 통치할 수 있다. 왕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지식과 이해의 도움으로 도덕의 준수를 제공해야 한다. 왕은 일방적인 도덕성에서 도출된 규칙으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으며, 약한 왕은 자신의 본보기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를 보여줄 수 없다. 나는 베다에게서 들은 것만으로 배운 의무와 관련하여 너를 가르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지혜와 경험의 결과이다. 이것은 배운 사람들이 모은 꿀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방적인 도덕의 도움으로 세상을 통과하는 길을 이룰 수 없다. 의무는 이해에서 생겨나야 하며, 선한 사람들의 실천은 항상 확인되어야 한다. 쿠루여!

다양한 사례에 맞는 유연함을 갖춘 왕의 지혜는 선한 결정이 수반되는 도덕적인 것이다. 비슈마가 ‘잔인하지 않음’의 덕목을 갖춘 유디슈티라에게 앵무새 우화를 통해 ‘연민’의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감수성을 교설한 것은 덕 있는 유디슈티라에게 공동체 윤리의 교훈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이다. 에피소드에서 신적인 존재에서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추락한 나무는 마하바라타의 전쟁 후 어머니들의 사회적 위상과 유사하다. 어머니의 존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신적인 존재지만 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사회적 위계의 가장 하단으로 떨어진다. 마하바라타는 특히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왕의 감성적 윤리학을 전쟁 후 사회적 치유의 주안점으로 설정한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성에 기반한 윤리적 판단은 Mbh(3.310 - 324)의 ‘약사의 호수(Yakṣa Praśna)’ 에피소드에서도 나타난다. 유디슈티라는 약사가 사는 호수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약사의 질문에 답을 못하면 죽게 되는 신비한 호수에서 유디슈티라가 받은 질문은 죽은 형제 중에서 단 한 명의 형제를 살린다면 누구를 살리겠냐는 것이다. 유디슈티라는 배다른 형제 나쿨라(Nakula)를 구한다고 답하는데, 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어머니의 존재이다. 유디슈티라는 친어머니 쿤티와 둘째어머니인 마드리(Mādrī)가 아들

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의 동등성에 주안점을 두어 Mbh(3.297.71 - 73)에서 “저는 잔인하지 않은 행위를 추구합니다(*ānṛśamsyam cikīrṣāmi*). 나쿨라를 살려주십시오. 약사여. ... 저는 두 그들(어머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어머니를 위해 나는 동등함(*sama*)을 원합니다. 나쿨라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

다르마의 화신으로 불리는 유디슈티라는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고통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혈연이나 정에 얽매이지 않고 형제들의 목숨을 건 결정적 판단을 한다. 자신이 쿤티의 자식이므로 쿤티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고, 마드리의 두 자식은 모두 죽었으므로 단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녀의 자식이 사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디슈티라의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느끼는 주체와 그 비중이다. 그는 친어머니와 둘째어머니를 차별하지 않고, 두 어머니의 고통의 동등한 감소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판단의 기준을 자신이 아닌 타자에 두고, 고통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함’에 근거한 행위를 지향하는데, 그의 공정함은 자신이 친형제를 선택했을 때 다른 어머니가 느끼는 취약성에 대한 공감적 이해인 ‘연민’에 의해 작동한다(Lath, 2009: 13).

앵무새도 자신의 거취와 행위를 결정할 때 타자인 나무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집중한다. 그리고 나무가 주는 행복과 고통에 좌우되지 않고 평등한 태도로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다. 앵무새는 인드라와 자기 성찰적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결정에 ‘연민’이라는 도덕적 감수성이 반영되었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타자에 대한 잔인함과 잔인하지 않음의 판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타적 지혜, 타자를 배려하는 비판적 반성, 이를 타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

## V. 결 론

앵무새 에피소드는 ‘잔인하지 않음’과 ‘신애의 박티’를 구비한 자를 ‘덕 있는 자’로 부르고, 그 탁월한 인격의 특징을 ‘연민’으로 규정한다. 비슈마가 앵무새 에피소드를 유디슈티라에게 교설한 이유는 앵무새와 나무의 관계가 유디슈티라가 왕이 되었을 때 왕과 국민의 관계 내에서 확장되어 적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앵무새는 자신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잔인하지 않음에 세우고, 나무와 박티로 연결된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즉, 앵무새 에피소드에서 ‘잔인하지 않음’은 덕 있는 사람의 구성요소가 되어 타자에 대해 ‘연민’하며 더불어 사는 연대(連帶)적 삶의 덕목으로 제시된다. 특히 독화살을 맞은 나무를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존재로 비유하면서 덕목의 가치를 입증하는데, 이는 앵무새가 나무에 의해 보호받고 성장하며 근거하여 살듯이 국왕은 어머니에 의해 올바르게 성장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로 배치된다. 사냥꾼의 독화살이라는 외부적 폭력에 의해 죽어가는 나무가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 연상

되고, 나무를 대하는 앵무새의 태도와 아들 잃은 어머니들을 대하는 왕의 태도가 연결된다. 앵무새가 나무에게 느끼는 연민은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사회의 약자로 전락한 어머니들에게 왕이 느끼는 ‘연민’이라는 윤리적 감정으로 확대된다. 이 연민은 약자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유대감에서 발생한 고통을 나누는 신애와 동료애, 사랑에 기반한 도덕적 감수성을 말한다. 앵무새와 나무의 관계는 마하바라타 후반부에 등장하는 유디슈티라와 개의 관계처럼 우연한 공존과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건 없는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일깨운다.

앵무새는 독화살을 맞은 나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어 나무를 저버리는 다른 앵무새들의 행위가 ‘잔인함’이라고 판단하고 ‘잔인하지 않음’을 선택한다. 앵무새의 ‘잔인하지 않음’의 행위 기준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자기 본위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덕 있는 앵무새가 나무에 대한 자기 본위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유디슈티라가 국민들에 대해 자기 본위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유도하게 된다. 앵무새는 나무의 열매와 잎을 취하는 본능을 ‘잔인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잔인하지 않음’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 나무를 떠나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자제하는 삶을 선택한다. 왕의 덕목으로서의 ‘잔인하지 않음’은, 국민과 유대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연민’의 부재가 바로 ‘잔인함’이며 그 잔인함에 대한 인식에 의해 잔인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다르마가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앵무새가 바라는 삶은 첫째, 나무에 대한 ‘잔인하지 않음’의 도덕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 박티라는 신성한 친밀함을 나무와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고, 셋째, 그 유대와 관계성에서 연민을 느끼며, 넷째 자신의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판단하여 이분화하지 않고 삶 자체에 만족하는 고락평정의 태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앵무새의 삶의 태도들은 유디슈티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국왕은 국민을 ‘잔인하지 않음’으로 대하고, 국민과의 신애적 친밀함을 굳건히 하며,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민’을 느끼면서, 공정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된다. 신과 신자의 사랑에 근거한 박티의 친밀함은 왕과 국민의 굳건한 관계로 확장되고, 그 속에서 국민과의 유대감은 자연스럽게 왕의 연민으로 진보한다. 물론 그 바탕에는 통치자의 ‘잔인하지 않음’에 의거한 인식론적 이해와 결단이 전제된다.

이처럼 마하바라타는 ‘연민’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정함을 유지하려는 감성적 윤리학을 지향한다. 전쟁 후에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집단적 비탄이 발생하는데, 특히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고통에 대한 왕의 대응방식이 극히 정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재건할 때 왕이 수행해야 할 주요한 임무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정신적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잔인하지 않음’은 비탄의 정서에 빠진 어머니라는 존재를 비롯한 미망인, 장님,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왕의 다르마로 기능한다. 이러한 ‘잔인하지 않음’의 윤리적 가치는 서양철학자 로티(Rorty)가 말한 “잔인함을 줄이는 것이 축소된 도덕의 역할”이라는 주장과 공자(孔子)가

당대 사회에 만연한 잔인함에 맞서는 유가적 전략으로 내세운 ‘서(恕)’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12: 1-2).

마하바라타의 ‘잔인하지 않음’과 ‘연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잔인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감의 연대를 제시하는 정치적 기획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앵무새의 우화에 서 앵무새가 보여준 모범적 사례는 유디슈티라가 왕으로서의 사회적 다르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유디슈티라는 ‘잔인하지 않음’의 통치기준 위에 비탄에 빠진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인 ‘연민’을 동반해 끊임없이 자비로운 인간이 되려는 노력으로 깊이를 완성해 간다. 왕은 운명적 카르마의 잔인함과 복잡한 다르마를 수용하고, 타자와 공동체에 대한 집단적 가치기준을 ‘잔인하지 않음’으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으로 상처받은 국민을 아우르는 ‘연민’의 자세야말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적극적 통치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디슈티라에게 ‘잔인하지 않음’과 ‘연민’은 ‘고락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로 통합되면서 꿀의 지혜로 완성되는데, 이러한 지성과 지혜는 우정과 연대로 짜여진 상호간의 신뢰 안에서 사회적 공정함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References

- BG: *Bhagavad-Gītā*(The Bhagavadgītā: With and Introductory Essay Sanskrit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Notes, by S. Radhakrishnan, London: G. Allen and Unwin, 1976)
- Bryant, F. (2007). *Krishna: A Sourceboo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lmiya, V. (2015). “Care Ethics and Epistemic Justice: Some Insights from the Mahābhārata”, Chakrabarti, A. & Bandyopadhyay, S. (ed.). *Mahābhārata Now: Narration, Aesthetics, Ethics*. New Delhi: Routledge.
- Dalmiya, V. (2001). Dogged Loyalties: A Classic Indian Intervention in Care Ethics. Runzo J. & Martin, N. M. (ed.). *Ethics in the World Religions*. Oxford: One World.
- Dalmiya, V. (2016). *Caring to Know: Comparative Care Ethics, Feminist Epistemology, and the Mahābhārat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Das, G. (2009). *The Difficulty of Being Good: On the Subtle Art of Dhar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s, N. (2019). The Importance of Being Modest. *Philosophy East and West*, 69(3), 870-879.
- Das, V. (2013). Being Together with Animals: Death, Violence and Noncruelty in Hindu Imagination. Penelope, D. (ed.). *Living Beings: Perspectives on Interspecies Engagements*. London: Routledge.

- Heim, M. (2022). *Words for the Heart: A Treasury of Emotions from Classical Indi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ltebeitel, A. (2001). *Rethinking the Mahābhārata: A Reader's Guide to the Education of the Dharma King*,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Kim, C. Y. (2021). The Virtue of “Non-cruelty (ānṛśamsya)” in the Animal Episodes of Mahabharata. *Culture and Convergence*, 43(1), 643-655.
- Lath, M. (2009). The Concept of Anrshamsya in the Mahabharata. Sharma, T.R.S. (ed.). *Reflections and Variations on the Mahabharata*. New Delhi: Sahitya Akademi.
- Lee, H. J. (2012). Consideration(考慮): Against Cruelty. *Pan-Korean Philosophy*, 65(2), 1-29.
- Mbh: *Mahābhārata*, (ed.). Bhandarkar Oriental Institute(BORI), revised. John Smith, Pune: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1999.
- Minnema, L. (2013). *Tragic Views of the Human Condition: Cross-Cultural Comparisons Between Views of Human Nature in Greek and Shakespearean Tragedy and the Mahābhārata and Bhagavadgītā*, New York: Bloomsbury.
- Rai, S. (2016).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Exploring the Concept of Non-cruelty. *International Studies*, 50(3), 209-225.
- Raveh, D. (2016). *Sūtras, Stories and Yoga Philosophy: Narrative and Transfiguration*. New York: Routledge.